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품앗이육아공동체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Experience of Pumasi Child Rearing of Housewives with Infants

정혜선*

두원공과대학 보육복지과

Chung, Hae Sun

Dept. of Childcare & Welfare, Doowon Technical College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experiences of housewives with infants' Pumasi child rearing community(i.e, communal child rearing community). A concrete context of pumasi child rearing of housewives with Infants was found. Results were as follows: The backgrounds of participation in pumasi child rearing community are isolated condition of child rearing and housewives' needs to find way of communication with others. Pumasi child rearing communities give meaningful experiences. They meet the developmental needs of both mothers and children and also provide various parenting models and skills, give a high value to individual child rearing, develop an everyday life community and strengthen the health of communities.

Keywords : Pumasi child rearing, experiences of child rearing, organizing child rearing communities

I. 서론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고도 압축적 경제성장을 했고, 그로 인해 매우 급격한 사회 변동과정을 거쳤다(조한혜정, 2006). 그 과정에서 도시화, 핵가족화, 가정과 일터의 분리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가 수반되었고, 이는 육아 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는 여성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 분리하였고, 이에 따라 육아방식도 크게 전업주부의 육아와 사회육아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게 되었다(김정희, 2000). 사실 육아 또는 아동의 돌봄은 주로 여성들이 가족에게 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 자연스런 일로 여겨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적절치 못한 대상으로 믿었기에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허라금, 2006).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최근의 위기적 사회현상으로 우리사회에서도 아동의 양육, 육아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이 제고되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도 주로 취업모의 양육지원에 모아졌고, 학문적 연구 또한 취업모의 육아문제에 집중되어왔다. 취업모의 양육 및 육아와 관련한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미숙, 문혁준, 2005; 송영숙, 김영주, 2008; 안지영, 박성연, 2002; 조영숙, 2008). 그 중 대부분이 양적연구이고 취업모의 육아현실을 살펴본

* Corresponding author: Chung, Hae Sun
Tel: 82-31-935-7162, Fax: 82-31-935-7295
E-mail: haesun@doowon.ac.kr

질적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취업모의 양육경험과 관련된 질적 연구는 ‘모성’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초기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노영주, 1998; 신경아, 1998), 기타 어머니됨, 부모됨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김경은, 2008; 손승아, 2000; 원정선, 1989; 이경혜, 1982; 이지순, 1982; 이해란, 1984; 조주연, 2001)들이 있다.

반면 전업주부의 양육 및 육아와 관련된 현상을 살피고, 이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전업주부의 육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핵가족 어머니 육아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 및 고립감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연구(변혜정, 1992; 신경아, 1999; 심영희, 1999)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여성주의 연구들은 여성들이 하는 육아와 같은 돌봄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비가시화해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 차별의 기본 토대가 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허라금, 2006). 이러한 비판 속에서 가족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돌봄의 사회관계망을 엮는데 관심이 모아졌고, 이는 곧 ‘사회적 양육’, ‘공동체적 양육’에 의 논의로 진전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전업주부의 육아현실에 대한 심층연구(정진경, 1994)에서는 아이와 엄마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지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이 고립 상태는 심각해서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전업주부들의 이러한 심리적 경험들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겪는 것이지만, 행복한 주부·헌신적 모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과 맞물려 어머니 개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립된 어머니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그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도 직결되므로 더 이상 사적인 해결에만 둘 수 없는 상태로 인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한 이들이 제시한 사회적 해결책은 ‘공동육아’였다. ‘공동육아’란 말 그대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것으로 부모,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보자는 것을 의미한다(정병호, 1994). 공동육아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이 배경이 되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고립된 핵가족의 육아문제가 부각되었고, 아동의 개체성과 주체성 및 그들의 미래를 고려한 아동중심적 육아관이 제안되었으며, 1990년대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인한 생활공동체의 등장이 배경이 되었다(김명화, 2005). 특히 초기 공동육아 방식을 형성하고 참여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른바 386세대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진보적 중

간계층으로 다양한 생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의지와 자신감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들은 ‘협동조합’방식으로 출자금을 내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진보적인 취지와 이념을 지닌 대안적 육아방식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공동육아는 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부모의 총체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등의 이유로 일반 부모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았기에(김명화, 2005), 계층적으로 분할된 소집단 운동이 될 위험성도 지니고 있었다(정병호, 1994).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초기연구에서는 공동육아 참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조합원들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본 연구(임우연, 1995),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하나의 대안적인 보육형태 또는 육아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결성된 이념집단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이부미, 1999; 차현진, 1997), 공동육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한송이, 1997),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구체적인 특성과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창호, 1998)등으로 계속되었다. 특히 류경희와 김순옥(2000, 2001)은 공동육아의 ‘공동체성 형성’과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참여 가족 간에 형성되는 정의 관계경험은 비혈연의 핵가족들 간에 ‘나’에서 ‘우리 가족’으로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다른 가족과 다른 가족구성원을 내 가족의 범주로 받아들이는 가족경계의 확대를 경험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참여가족이 내 아이를 잘 길러 보겠다는 기본적인 이기성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 유대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과 특정계층이 중심이 된다는 편견과 위화감, 경제적 부담감등이 공동육아의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동육아의 이념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공간의 마련이나 출자금의 부담이 없고, 일반 부모들이 ‘따로 또 같이’ 육아를 함께하려는 육아 공동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육아공동체는 특히 자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육아에 관한 고민과 부담이 큰 전업주부들의 관심을 받으며 확대되어가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아동의 육아실태에 관한 연구(이정원, 이윤진, 2008)에 의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대부분은 핵가족으로서 아버지만 직업이 있고 대부분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아동의 주 양육자(93.1%)였다. 이들은 영아기에 가정에서 일대일 양육을 하는 것이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생각하며,

유아기가 되어 유치원과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와 엄마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이는 1990년 전업주부의 육아실태 연구결과(정진경, 1994)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 지지 않은 모습이며, 영유아기 자녀의 주양육자인 전업 주부의 양육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최근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육아공동체의 조직과 활동이 ‘품앗이 육아’, ‘육아 품앗이’ 등으로 명명되며,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품앗이 육아, 육아 품앗이 형태의 육 아공동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김정희 (2000)의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 공동육아’ 단 한 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 공동육아를 모자관계에서 조명하면서 여성주의와 대안적인 육아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품앗이 공동 육아가 아이와 어머니 모두에게 억압적인 핵가족 육아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자녀를 공동체적 인간 으로 길러내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품앗이 육아가 시민자치운동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품앗이육아에 참여하는 어머 니들의 동기와 참여과정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과 기대들을 심층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사회 육아공동체의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업주부의 육아공동체의 참여 과정과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업주부의 포괄적이고 생생한 육아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육아공동체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총체적이고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 와 가장 밀착된 육아를 경험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 업주부에 집중하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육아공동체의 형태는 전업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육아 놀이·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일반적으로 ‘품앗이육아’, ‘육아품앗이’ 등으로 명명되는 것이다. 품 앓이육아를 공동체로 명명한 것은 연구대상이 되는 품앗 이육아가 일회적인 모임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속성인 소 속감, 참여자들간의 영향력, 참여를 통한 상호간의 육구 충족, 사건 및 감정적인 경험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공동 체적 성격을 갖는데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 아공동체 참여 배경과 참여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 정을 통해 참여자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업주부의 육아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육아공동체의 역할과 기능 및 향후 방향에 대해 기술포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의 육아공동체 참여 배경과 과정은 어떠한가, 그러한 과 정을 통해 참여자가 경험하는 것과 그들에게 주는 의미 는 무엇인가?”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공동체 참여과정과 이를 통한 주부의 육아경험을 심층적으로 이 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이다. 연구참여 자들에 대한 선정과 표집은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선 정하였다. 우선 어머니들의 육아공동체(품앗이 육아) 모 임을 지원하고 있는 K시 건강강정지원센터 담당자의 추 천을 받아 지역 육아카페의 운영자와 매니저를 맡고 있 는 어머니들을 면접하였다. 다시 이들을 통해 육아공동 체의 대표적 포털사이트로 알려진 ‘품앗이 파워’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어머니를 추천받았다. 이러한 방식으 로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참여자들을 추 천받는 방법을 취하며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면접하였 다. 특히, 공동육아와 달리 품앗이육아의 경우 아이와의 외출이 용이해지는 생후 1년 후부터 참여가 활성화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공식적 기관에 입학하는 5-6 세 전까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품앗이육아 의 참여기간은 대체로 4년 내외가 된다. 이 때문에 본 연 구 참여자들의 품앗이 육아 참여기간도 1년 미만, 2년 미 만, 4년으로 선정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참여기간을 고려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둘째 출산으로 육아 공동체 활동을 잠시 중단한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참여자 가 현재 육아공동체 모임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육 아공동체에 참여하는 어머니(4명)부터 육아공동체를 조 직하고 운영한 어머니(1명), 중소도시 육아공동체 모임의 매니저(1명) 및 운영자(1명)를 맡고 있는 경우와 품앗이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령	학력	자녀	결혼 기간	모임 참여기간	이전 직업	비고
참여자1	36세	대학원졸	2명 - 5세 - 5개월	5년	1년 5개월	사회복지사	참여자
참여자2	33세	고졸	2명 - 6세 - 5세	7년	1년 6개월	-	폼앗이 지역카페 매니저
참여자3	33세	대졸	2명 - 5세 - 3세	7년	4년	프로그래머	폼앗이 지역카페 운영자
참여자4	34세	대졸	2명 - 5세 - 3세	10년	2년	비서	폼앗이 공동체 조직
참여자5	35세	대졸	1명 - 3세	7년	1년 1개월	대학사무직	참여자
참여자6	36세	대졸	2명 - 6세 - 3세	5년	10개월	사무원	참여자
참여자7	32세	대졸	2명 - 6세 - 4세	6년	10개월	-	참여자
참여자8	37세	대졸	2명 - 6세 - 3세	6년	11개월	회사원	폼앗이 전국카페 공동대표

파워와 같은 전국단위의 대표적인 육아공동체 포털사이트의 대표(1명)를 맡고 있는 경우까지 다양한 육아공동체 경험의 단면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이 참여자들 내면의 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험세계를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는 심층면접을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공식적이고 구조화된 면접이 아니라 대화에 가까운 면접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연구주제와 관련해 파악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다(김명화, 2005). 이들과의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이었다. 반구조화된 면접이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접지침’을 정해두고, 필요한 질문 내용과 순서에 대하여 최소한의 준거 틀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상황적 맥락에 대한 융통성과 수용성의 여지가 있는 장점이 있다(김현옥, 2008). 연구 질문과 지침이 마련되었지만, 질문의 순서와 표현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연구자가 융통적으로 바꾸며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아낸 경우 질문을 바꾸거나 새로운 질문이 주어졌다. 부가적으로 관련 포털사

이트와 온라인카페의 게시물 및 관련 서적의 폼앗이 육아 활동 사례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과의 면접은 2009년 7월과 8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1회 면접 내용분석 결과 정보의 확인이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접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자택, 공원 등에서 이루어졌다. 사전에 참여자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에 동의의를 구했으며, 면접전에 연구동의서를 보여주고 확인받았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보이스레코더에 녹음되었으며, 면담이 끝난 뒤 녹음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청취하며 연구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전사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므로 현상학적 분석방법중 하나인 Giorgi(신경림, 2001) 분석방법을 따랐다. 우선 녹음한 면접 자료의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음한 원자료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으며 자료에 대한 통찰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문서로 작성된 원자료들은 중요하고 의미 있

게 여겨지는 단위를 찾아내는 의미단위 식별 단계를 거쳤다. 이후 녹취록에 있는 각각의 의미단위와 관련된 진술을 다시 묶고 재 기술하였으며, 주제를 밝히기 위해 모든 참여자들 전반에 걸쳐서 각 의미에 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하여 창조적인 언어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성적·창조적 사고를 통해 서로 얽혀있는 의미와 관련된 구성요소를 재편성하고 일관성 있는 의미구조로 통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다면화 (triangu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품앗이육아 담당자, 사회복지학 교수, 품앗이 육아사이트 관련자 등에게 연구결과 및 해석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이들 인적자원들은 연구자의 독단과 편견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연구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중 의문이 생기거나 방향성을 상실하였는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연구참여자에게 이를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품앗이육아공동체 참여의 배경

1) 고된 육아, 고립된 어머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경험한다. 결혼 또는 출산 전까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던 참여자들은 결혼, 특히 출산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거나 차단된다. 이들은 결혼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친숙한 가족, 친지, 친구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출산과 더불어 집에서 나오기 어렵게 되어 스스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다(정진경, 1994). 특히 아이가 어린 경우, 본인이외에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어머니들은 고립감이 심해지며, 24시간 휴식 없는 삶의 시간은 몇 년간 지속된다.

외롭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아기 태어나면 제일 힘들잖아요. 양육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데 딱히 연락할 곳도 없고, 나가기도 힘들고, 인터넷밖에 못하고. 임신해서 아이 넣고 아이가 어릴 때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소외되는 것 같아요. 외롭고. 인터넷 카페에도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참여자5).

감옥살이 같잖아요. 활발한 엄마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구

요. 10개월까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한테는 속상한 거 얘기하기 그렇고, 남편도 바쁘고. 남편도 자기도 힘들다고 하고. (둘째 출산한)지금은 첫째 때 친구들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첫째 낳고 참 힘들었던 거 같아요(참여자1).

전통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아이를 길러냈다. 대가족제도하에서 아이는 할머니가 작은엄마가, 이웃 엄마와 언니들이 함께 키워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달라졌다. 연평균 20%에 이르는 높은 이사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단절된 생활공간(이종수, 2008)은 마을 돌봄 공동체를 와해시켰다. 또한 아이를 싸서 키우는 우리나라의 육아문화는 어머니로 하여금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도 꺼리게 만든다. 참여자의 진술처럼 아기 출산 후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남편이나 가족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는 계속되며, 익숙지 않은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며 심신의 피로를 경험하게 된다. 성숙한 한 인간이 몇 년간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포기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오로지 자기 아이를 키우는 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고립된 어머니와 아이의 문제를 사적인 해결방안에만 미루어 둘 수 없는 상태가 된다(정진경, 1994).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전에 하던거 그만두고 놀러앉았는데 애도 잘 키우는 것 같지 않고, 살림도 서투르(참여자5).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에는 학대받거나 소외된 기정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제가 경험해보니 그냥 애놓고 하는 것도 참 힘든 거 같아요. 아무도 이걸 힘들다고 대놓고 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엄마들이 어디 가서 어떤 요청 자체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참여자1).

2) 소통의 공간 찾기

사회·정서적으로 고립된 생활에 적응해가며 또는 버텨가며, 어머니들은 세상과의 소통의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 특히 첫아이를 낳은 초보 어머니들은 일상의 매 순간 부딪히는 다양한 육아고민에 대해 시원스럽게 답해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며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육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리게 되는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은 책을 읽을 시간도 전화할 시간을 내기에도 어려운 어머니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하고 육아정보를 구하며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되어준다.

아기 낳고 처음에는 잘 나가지도 못하니 엄마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죠. 아이가 잘 때 육아카페에서 정보도 찾고, 올라오는 신변잡기 글도 보며 공감하고, 자기 녀뉘리 같은 글도 있고, 답답한 엄마들이 함께 만나자는 글도 올라와요(참여자1).

인터넷 '지역카페'에서 육아방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활동하고 글도 많이 올리고.. 그걸 보면서 애들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겠구나 했어요(참여자3).

2. 품앗이육아공동체의 참여과정

1) 마주침

박재환 외(2008)는 사회적 교제를 설명하면서, 초점 있는 마주침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때 사회적 만남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당사자들은 어떤 교감을 주고받으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일상에서 의미 있는 활동의 교류가 있을 때, 지멜(Simmel, 1950)이 말하는 형식과 내용으로서의 사회적 교제가 관계와 활동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인터넷공간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머니들과 빈번한 접촉과 마주침을 하게 되고,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 비슷한 고민과 정서가 공유되고,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사회적 교제가 이루어지며 가상의 육아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만나서 엄마들과 이런 저런 아기 키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다가 나중에는 실내놀이터를 같이 가거나,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하거나 하면서 서로와 친해지기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참여자2)

이 사람 옆집 할머니 정도이고, 친구들은 멀리 살고. 뭐 할 거 없을까? 했어요 얘기 친구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우리 동네 카페를 검색해봤어요. 지역카페에서 엄마들이 올린 글도 읽고, 저 같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품앗이 모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참여자3).

저희는 한 단지에서 같은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이었는데 어린이집 버스 기다리다 자주 마주치면서, 육아정보도 나누고 아이들 얘기 나누다가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참여자6).

2) 눈 맞추기

대부분의 품앗이 육아 모임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조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부는 이미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 간에 조직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도 대부분 인터넷 육아카페나 품앗이포털사

이트의 지역모임에서 참여자를 구하였다. 참여자의 일부는 육아를 나누는 '품앗이 육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카페에서 일회적·즉흥적으로 만남을 지속하다가 의견을 모아 뒤늦게 품앗이 육아공동체를 조직한 경우도 있었다.

처음엔 놀자하면서 만나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기 아까워서, 뭐 좀 또 없을까 했는데, 품앗이 전문 사이트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참여자3).

비슷한 고민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모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아이들이 함께 놀게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다보니 '품앗이육아' 포털사이트가 있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활동하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참여자4).

육아공동체는 주로 자녀의 연령과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연령모임은 자녀들의 발달욕구가 유사하기 때문에 활동의 내용이나 영역을 구성하기에 편리하다. 육아공동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조직되지만 참여자들은 지역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여 만남과 교류가 어려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였다. 주로 같은 아파트, 동 단위로 만남이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을 모으는 초기에 자신이 원하는 품앗이공동체의 취지와 기대를 함께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인지학습이나 교육에 중점을 둔 품앗이도 많지만, 저희는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앗이로 인지되기를 원했어요(참여자3).

연령이 비슷해야 엄마들이 얘기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었비슷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연령을 제시하고 (게시)글을 올렸어요(참여자6).

3) 마음 맞추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의 만남은 고달프고 외로운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소통과 정보욕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육아공동체를 만들거나 또는 참여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녀가 친구를 만나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 또래집단과 함께 함으로써 다양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등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부가적으로 '엄마친구'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엄마들이 편하자 했으면 안 만들었을거예요. 엄마들 보다는 아이를 생각해서 참여하게 된 거죠. 엄마들의 사적인 얘기보다는 아이들 중심으로 신나게 놀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자는 엄마들이 모여서요(참여자3).

우리아이가 좀 민감했어요. 그런 경향으로 활동에 너무 제한이 많았죠. 엄마생각에 격하게 놀아주고 싶고, 아이가 좀 더 세상을 즐기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같이 놀아줄 친구,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를 보면 아이가 스스로 이래도 되겠구나 저렇게 놀아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했지요(참여자5).

요즘 놀이터에 나라도 친구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문화센터나 놀이학교 같은 곳도 잠깐 프로그램만 하고 헤어지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도 거기서 만나는 아이들을 '문화센터에서 만난 애, 수영장에서 만난 애'라고 부르지 친구라고 하지 않더라구요(참여자7).

육아공동체안에서는 아이를 혼자 키울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모임에서 하게 될 활동의 방향, 아이들 간의 갈등 해결방식, 식사나 육아방식 등을 맞춰가며 자신의 신념과 관점이 드러나고, 때로는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참여자들은 실제로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지, 내 육아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잘 인식하고 시작할 것을 강조하였다. 상황에 따라 공동체의 성격은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뜻을 맞추어야 품앗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좀 간을 본다고 해야 하나? 엄마들과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뭘 위해서 할 것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정서가 우선인지, 영어학습 인지, 인지 중심 인지, 뭐 그런 것, 일단 시작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얘기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정할 수 있을 관계가 되어야 오래 갈 수 있어요(참여자5).

엄마들이 마음이 잘 맞아야 해요. 사실 아이들은 쉽게 친해지고 익숙해지거든요. 해나가면서 엄마들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봤어요. 하다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많이 맞추려고 노력했어요(참여자6).

4) 품 나누기

기본적으로 품앗이육아공동체는 엄마들이 '품'을 들여 다른 가족과 나누는 것이 기본이 된다. 비교적 영아기 자녀로 구성된 품앗이는 주로 놀이와 야외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유아기로 성장하면서 또는 유아기 자녀로 조

직되는 경우 놀이 뿐 아니라 인지와 학습적인 측면에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들의 성장에 맞춰 활동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반화된 유아기 사교육을 대체하려는 엄마들의 욕구도 혼재되어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품'은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활동이나 노력 등을 의미하는데, 이의 수준이나 전문성보다는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것이 빠진 '기능적인 품나누기' 공동체는 오래 지속되기에 어렵다고 보았다.

준비해온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볼 때 좋아요. 지금까지 품앗이를 계속 한 것은 준비과정이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겠지 하면서 준비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느끼며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참여자2).

1세 품앗이를 시작했어요. 4-5명에서 팀을 만들어서 음악도 하고, 동물원도 가고, 딸랑이도 만들어주고.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원하는 것에 맞추려면 유아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서 공부해서 하게 되요(참여자3).

품앗이를 하다보면 아이들 나이가 한 살씩 가면서 점점 내용도 발전하게 되요. 아이의 연령에 맞게 공부하고 시간이 가면서 엄마들의 역량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참여자4).

3. 품앗이육아공동체 경험의 의미: 품 넓히기

연구자가 가장 주목한 것은 혼자만의 육아도 쉽지 않다고 느끼는 현실에서, 다른 가정과 '마음맞추기'를 하고, '품을 나누며' 함께 하는 이유였다. 현재도 각종 인터넷 육아카페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지속되는 '품앗이'모임을 통해 어머니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무엇이 그것을 지속하게 만드는지? 를 밝히고 싶었다. 이러한 의도에서 품앗이육아공동체를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육아공동체는 '아이에게 뭔가 더 좋은 경험을 할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욕구에 잘 부합되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진술했듯이 품앗이의 참여 동기는 '아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변화 경험은 어머니들에게 만족을 주었으며 품앗이를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육아공동체를 통해 핵가족 육아, 경쟁적 인지도육, 관계가 단절된 사교육에 결핍되어 있는 발달적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현재의

사교육 및 육아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능하다. 참여자들을 포함한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의 행복, 정서, 감성의 발달에 대한 기대가 높고, 우선시 하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들은 현실적으로 인지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을 위해 공동체 육아방식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엄마와의 활동에서 더 편안해하고 자기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많은 선생님들이 모두를 맞출 수 없고 돌봐줄 수 없는데, 여기서는 편한 엄마고, 이모고, 아줌마이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엄마들이 다 들어주고, 맞춰주고, 공감해주니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아이는 자기표현이 거의 없었는데, 품앗이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참여자6).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이 아닌 이상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친구란 개념을 익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회적인 만남은 정서의 교류가 없잖아요. 싸워서 힘들고, 좋았던 감정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하니 아이들이 친구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다른 친구 그 엄마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도 하고, 가족이 아닌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나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타협하는 기술도 배우고 하는 것만이라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여기서는 엄마들이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주 한정된 규칙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아이들끼리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참여자5).

둘째, 육아공동체는 다양한 양육모델을 찾고 체험하는 실천적 장이 된다. 모든 어머니들이 당면하는 시급하면서도 당황스러운 육아문제, 어떻게 하면 아이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다양한 답을 얻어간다. 특정 이념이나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앞에서 보고 배우며 실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 상황 속에서 체험하는 양육의 기술들은 참여자들의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와 엄마를 잘 이해하고 있는 다른 엄마가 양육 ‘코치(coach)’가 되어, 상황에 딱 맞는 양육 ‘코칭(coaching)’을 제공하기에 더욱 유용하다.

다른 사람의 육아방식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배우게 되요. 요즘은 오로지 인터넷과 책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그것도 다 올바른 정보가 아니고 내 상황에 들어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너무 끼고 키우는 엄마는 나를 보면서 좀 더 느슨하게 키워도 별 탈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좀 털털 한데 세심하게 아이들을 받아주고 대화하는 다른 엄마모습 보면서, 아, 내가 바라던 모습이 저런 것인데 하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요. 내 부족한 양육의 부

분을 다른 엄마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나는 우리 아이가 내 양육방식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엄마가 해주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 집 아이는 내 방식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 서로의 아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면서도 객관적으로 양육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구요(참여자1).

셋째, 사적 영역에 국한된 육아,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전업주부의 일상에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고 이는 어머니들의 존재감, 자부심으로 발전되었다. 무엇보다 내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었다. 어머니들은 내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어 훈육하고 보살핌을 제공하고,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는 경험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육아공동체의 참여과정을 배움과 자기성찰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나면서 정체된 삶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또 마냥 집에서 애 키운다하기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좀 더 당당히 말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지식이 없어서 부담스러웠는데, 하다보니까 노하우도 쌓이고 재미있더라고요. (참여자1).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나 반응이 올 때는 너무 좋고, 어찌 보면 육아와 살림하다 보면 지루한데 이게 일종의 탈출구 였던 거 같아요(참여자5)

품앗이 모임을 하고, 품앗이사이트의 공동대표가 되면서 이런 저런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회와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인정받는 것 같아요(참여자8).

활동하는 다른 엄마들을 만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엄마들의 활동내용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요. 추천하는 책도 많이 읽게 되고, 품앗이 엄마들과 같이 영어공부도 시작했어요(참여자7).

넷째, 육아공동체가 돌봄과 생활의 나눔으로 이어져 타인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됨으로써 공동체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목적 있는 만남에서 친분을 나누는 관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편,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공동체적 육아 모임은 학습과 놀이뿐 아니라 먹고, 자고, 입고, 쉬는 생활의 차원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아이들 간의 몸싸움, 기싸움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문제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공동체에 공을 들이는 참여자들에게 당혹스러운 경험이 된다. 이러한 갈등과정을 해결해나가며 공동체의 결속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로 유지되기도 하는데, 강제성이 없는 공동체의 특성상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해체되거나 공동체를 탈퇴하게도 된다. 다양한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에 대해 더 깊이 고려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이는 ‘우리’라는 의식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한 아이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 엄마가 양해를 구하고, 엄마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해서 모임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고.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시간을 주자.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다 하면서 자꾸 가르치고 했더니 괜 찮아지고, 우리 아이도 좀 더 단단해 지고, 그 아이는 오히려 순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저희 같지는 않고 다른 모임은 와해 분위기가까지 가기도 한데요(참여자2).

육아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났지만, 함께한 시간이 쌓여가며 아이들은 친구가 되고, 만나면 엄마들이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노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 시점에서 엄마들은 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같이 해결해나가며 이웃 또는 친구가 되어간다. ‘○○엄마에서 누구야(상대방의 이름)’로 불리게 되는 시점이 된다. 아이들은 ‘○○엄마, 아줌마 로 부르다가 ○○이모’로 호칭을 바꾸기도 한다. 놀이·학습 공동체가 돌봄 공동체로 다시 생활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남편도 잘 모르잖아요. 항상 같이 있는게 아니고, 친한 친구도 제 말을 완전히 공감해주지 못하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소통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엔 아이중심으로 가자 합의하고 시작했지만, 애들이 크니깐 자기들끼리 잘 놀고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가 많아지고 깊어지며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목적이 있는 관계에서 친구 같은 관계로 변하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가 아프면 내 아이처럼 걱정되고요(참여자1).

원래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이를 매개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안보면 쉽게 남이 될 수도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베풀려고 노력해요. 반찬할 때도 좀 더 해서 나눠주고, 나눠주면 또 주고받게 되고 그렇게 이웃이 되는 것 같아요. 급할 때 서로 아이를 봐주고 맡기기도 하고, 내가 돈 주고 산 학습지나 자료도 돌려보고, 육아를 나누는 것에서 생활 전반의 나눔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되기 위해 이렇게 나누고 배려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체험하고

알아갔죠. 잊혀진 이웃 간의 정이나 예절 같은 것이 되살아날 수 있고요(참여자8).

다섯째, 공동체적 성향의 강화는 내 아이, 내 가족 넘어서 더 크고 넉넉한 시선과 품을 지닌 이른바 ‘사회적 모성’으로 개발될 수 있다. 다른 육아공동체와의 교류를 시도하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연대하기도 한다. 또 비록 어떠한 개인적인 교류가 없더라도 인터넷 육아공동체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한다. 지금까지 타인의 문제로 여겨왔던 사교육, 무상교육, 급식문제 등의 사회적 이슈들이 주요한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다.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이전에 시민운동의 경험이나 특별한 사회의식,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왔던 이른바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들의 변화였다. 삶과 직결된 육아, 교육, 복지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주체적인 시민의식으로서 발전되어 지역의 건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다.

아이양육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자주 생각을 나누게 되고, 직접 교육을 준비하게 되면서 교육문제도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사교육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하고, ‘무상교육’, ‘급식’, ‘환경’ 같은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의 문제가 아니지만 언젠간 닥칠 문제이니 까요(참여자2).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주변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울면 그냥 속으로 왜 그럴까 생각하며 쳐다만 봤다면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왜 그런지 묻게 되고, 돌봐주고 싶고. 없던 용기가 생겼어요(참여자3).

좀 더 넓게 사회전체,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인이었지만, 이제는 전체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는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이들도 지역 모임에 참가한 뒤부터는 동네 아이들이 다 친구고 언니, 형이 되어 서로 인사하더라고요(참여자4).

그러나 모든 육아공동체의 참여자들이 이 같은 단계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중 일부는 자신의 공동체 내 관계에 만족하고 머무르며 육아모임이 외부에 개방되거나 소통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들처럼 지역의 문제나 육아·교육 문제에까지 자신의 관심과 활동영역을 넓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앞서

제시한 다양한 이유들로 품앗이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품앗이 육아공동체에 계속 참여할 의지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공동체 참여 배경과 참여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업주부의 육아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육아공동체의 역할과 기능 및 향후 방향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품앗이 육아공동체의 참여 배경, 참여의 과정, 육아공동체 경험의 의미와 변화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육아공동체 참여의 배경이 되는 육아현실은 ‘고된 육아, 고립된 어머니’, ‘소통의 공간 찾기’로 설명된다. 참여자들은 도와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며, 24시간 고된 육아에 시달린다. 특히 공동체성을 상실한 현재의 지역사회와 주거특성은 주부의 고립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소통의 공간을 찾으려 노력하는데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이 가장 유용한 대안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대체로 일상적 소통의 공간인 인터넷을 통해 육아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조직하게 된다. 이 과정을 ‘마주침’, ‘눈 맞추기’, ‘마음 맞추기’, ‘품 나누기’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대체로 육아공동체 참여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머니들과 빈번한 접촉과 마주침을 하게 된다. 비슷한 고민과 정서가 공유되고,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사회적 교제가 이루어지며, 가상공간을 넘어 실제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가 생긴다. 이러한 과정을 ‘마주침’으로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품앗이 육아공동체는 인터넷 공간을 매개로 조직되며, 일부는 이미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 간에 조직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도 대부분 인터넷 육아카페나 품앗이 포털사이트의 지역모임에서 참여자를 구하였다. 연령과 지역, 목적에 맞춰서 함께 할 참여자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를 ‘눈 맞추기’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과정이 상대방을 모르는 익명성과 비대면적 특성을 지닌 사이버 네트워킹(박재환 외, 2008)으로 이루어졌기에 실제로 품앗이 육아공동체에 참여하면 혼자 아이를 키울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활동의 방향, 아이들 간의 갈등 해결방식, 식사나 육아방식 등을 맞춰야 하고, 이때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던 자신의 신념과 관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는 육아방식과 학습방향등에 대해서 서로가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 맞추기’ 과정은 육아공동체 조직 초기에 주로 이루어지지만 참여과정 내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은 ‘품 나누기’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품앗이 육아공동체는 엄마들이 ‘품’을 들여 다른 가족과 나누는 것이 기본이 된다. 참여자들은 지식이나 기술 자체보다는 함께 참여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 자체가 육아공동체 존립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혼자만의 육아도 쉽지 않다고 느끼는 현실에서, 다른 가정과 ‘마음 맞추기’를 하고, ‘품을 나누며’ 함께 하는 이유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품앗이 육아공동체 경험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변화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참여자들은 육아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육아방식이 기존의 육아·양육방식과 비교해 자녀에게 ‘더 좋은 경험’이며 ‘더 좋은 기회’라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육아공동체를 통해 핵가족 육아, 경쟁적 인지교육, 관계가 단절된 사교육에 결핍되어 있는 아동 본연의 발달적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개별아동의 욕구를 존중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아동중심적 육아’방식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품앗이육아공동체의 육아방식 또한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기에 과열 사교육으로의 전환을 경계할 부분도 있었다.

둘째, 육아공동체는 다양한 양육모델을 찾고 체험하는 실천적 장이 된다. 이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체험하는 양육의 기술들은 참여자들의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 일상적으로 가족, 이웃으로부터 얻던 양육의 지혜와 조언들이 육아공동체를 통해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육아공동체 활동은 사적 영역에 국한된 육아,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전업주부의 일상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이는 어머니들의 존재감, 자부심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육아공동체의 참여과정은 배움과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정체된 삶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력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넷째, 참여자들은 초기 목적 있는 만남에서 점차 친분을 나누는 관계로 변화하는 경험을 한다. 품앗이 육아공동체는 육아부담의 해결, 보다 나은 육아·양육방식 찾기 등과 같은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점차 정서의 교류와 나눔 등으로 인한 ‘우리’의식 등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공동체적 육아모임은 필연적으로 갈등의 상황이 발생된다. 이러한 갈등과정을 해결해나가며 공동체의 결속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한다. 다양한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에 대해 더 깊이 고려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우리’라는 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다섯째, 공동체적 성향의 강화는 개인의 모성이 내 아이, 내 가족 넘어서 ‘사회적 모성’으로 개발될 여지를 마련한다.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이전에 시민운동의 경험이나 특별한 사회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왔던 이른바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들의 변화였다. 삶과 직결된 육아, 교육, 복지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주체적인 시민의식으로서 발전되어 지역의 건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향후 이 같은 비공식영역에서 사회를 돌보며 지탱해온 이들 ‘주부’들의 저력과 에너지가 어떻게 모아지는가가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 돌봄 사회로 전환하는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조한혜정, 2006). 그러나 모든 육아공동체의 참여자들이 이 같은 단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중 일부는 자신의 공동체 내 관계에 만족하고 머무르며 육아모임이 외부에 개방되거나 소통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앞서 제시한 다양한 이유들로 품앗이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품앗이육아공동체 경험이 전업주부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의 수월성을 높이며, 주부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전업주부의 다양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서의 교류와 공감을 통해 일종의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작용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을 상실한 한국 사회 전업주부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인다. 실제 참여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품앗이 육아공동체에 계

속 참여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전업주부들의 육아공동체는 전업주부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성장의 동력이 되고, 다양하고 실천적인 양육모델을 제공하게 되며, 사라져가는 공동체성을 복원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으나, 몇 가지 현실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육아공동체를 통해 육아의 부담이 줄고, 사적 육아가 사회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일로 재정립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육아의 책임은 어머니·여성에게 맡겨지고, 아버지 또는 남성은 보조자, 방관자의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를 공동체적 삶에 동참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느꼈다. 소극적으로 일부 아버지들이 품앗이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쉽지 않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참여자들의 품앗이육아 활동을 ‘살림과 가족 내 주부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두고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한계를 벗어날 때는 ‘몰려다니며 할 일 없이 놀러 다닌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의식의 변화를 경험한 어머니들과 여전히 제자리인 남편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갈등의 과정을 거쳐 남편의 의식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회가 어떠한 시선으로 어머니들의 육아공동체를 바라보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였다. ‘이웃마들이 모여 수다 떨고 노는 모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참여자들은 가정을 벗어난 공적 공간에서 활동을 도모하면서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느끼며 위축되기도 하였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정 또는 공동체적 보상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반쪽짜리 공동체,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려면 어머니들의 개인적 성장과 함께 공동체간의 연대와 사회참여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품앗이육아공동체의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품앗이육아방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건강가정센터 뿐 아니라 주부들이 거처 가는 공간 - 병원, 보건소, 동사무소,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이를 홍보하고 안내해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 성장의 욕구와 나눔의 경험을 가진 주부들에게 이른바 ‘사회적 모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품앗이 육아공동체 조직 조력자 또는 양육멘토 역할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품앗이육아공동체의 구심점은 인터넷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육아 카페 등을 기존의 육아지원망과 연계하여 ‘지역의 육아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유용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확산과 수집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넷째, 품앗이 육아의 공동체적 돌봄 경험을 아버지, 가족, 지역사회에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실천 전략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품앗이육아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유아기 자녀 어머니들의 육아현실을 보다 생생히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고민과 욕구를 살펴보고, 이들이 육아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밝히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업주부들이 육아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들의 경험과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전업주부가 요구하는 육아지원방식을 결정하고, 품앗이육아공동체의 활성화와 방향설정을 하는데 기초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에 있어 영유아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경험에 한정되어있다. 향후에는 품앗이육아공동체의 주요 주체인 자녀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육아공동체의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조사와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량적 연구 또한 요구된다.

주제어 : 품앗이육아, 육아경험, 육아공동체 조직

참 고 문 헌

강연아. (2008). 예비부부의 결혼준비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은. (2008). 취업모의 첫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화. (2005). 공동육아의 대안교육모델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3.
 김정희. (2000).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 공동육아: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6(1), 95-129

김현옥. (2008). 지역화폐운동에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 송파품앗이와 한밭레즈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2(1), 85-107.
 노영주. (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류경희, 김순옥. (2000).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19-151.
 류경희, 김순옥. (2001).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형성과정 -조합형 어린이집 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9(3), 107-133.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저.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한울.
 변혜정. (1992). 임신에서 초기양육까지의 어머니 일 수행경험으로 인한 ‘어머니’로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승아. (2000). 첫 어머니 됨의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영숙, 김영주. (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신경림. (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신경아. (1998). 한국 여성의 모성 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30대 주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경아. (1999). 1990년대 모성의 변화: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나남출판.
 심영희. (1999). ‘자식바라기’ 어머니의 전통성과 성찰성.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나남출판.
 안지영, 박성연.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9.
 원정선. (1989).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혜. (1982). 산육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2(2), 67-79.
 이부미. (1999).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원, 이윤진. (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중수. (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 이지순. (1982). 첫아이 출산 후 부부가 지각한 가족의 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 (1998).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과정과 집단정체성의 형성 -한 조합형 어린이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 (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우연. (1995).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부모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신촌, 청주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병호. (1994). **공동육아 운동론. 함께 크는 우리아이**.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 정진경. (1994). 고립된 엄마- 중산층 전업주부의 육아상황과 정신건강. 공동육아연구회 편. **함께 크는 우리아이**.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 조영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련성 탐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주연. (2001). 출산기 여성의 산후경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한혜정. (2006). 토건국가에서 돌봄사회로 - 여성네트워크 의한 새로운 인프라 만들기. 조한혜정, 허라금, 모현주, 이충한.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 차현진. (1997). 공동육아 어린이집 나들이 활동의 교육적 의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송이. (1997). 새로운 보육형태인 '공동육아'에 관한 연구 -공동육아 부모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라금. (2006). 돌봄의 사회화. 조한혜정, 허라금, 모현주, 이충한.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 Simmel, G. (1950).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저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한울.

접 수 일 : 2009. 09. 05.

수정완료일 : 2010. 06. 14.

게재확정일 : 2010. 06. 16.